

곡성 기차마을 장미공원 2배로 늘린다

2026년까지 '기차마을 특구 고도화' 레일바이크·기차 플랫폼 등 조성 5월20일 장미축제 개막식서 공개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고도화' 사업의 하나로 장미공원 확장 구역에 조성되고 있는 기차플랫폼 구상도. 오는 5월 열리는 '곡성세계장미축제'에서 만날 수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이 장미공원을 2배로 확장하는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고도화 사업'을 오는 2026년까지 2단계에 걸쳐 펼친다.

곡성군은 다음 달 20일부터 열흘간 지역 대표 축제인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앞두고 있다.

곡성군은 올해까지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고도화'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단계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

우선 1단계 사업에서 장미공원은 2배 확장한다. '세계에서 온 선물'이라는 주제로 시대적 배경에 따라 장미공원을 조성하고 휴게 공간을 마련한다.

기차마을에서 방문객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레일바이크'도 1단계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했다. 옛 곡성역사 앞에서 요슬랜드 인근까지 되돌아 오는 구간 등 터널을 통해 야간 경관을 조성했다. 새로 조성한 레일바이크 구간은 장미축제 개막 이전인 5월 초부터 운행한다.

기차마을을 대표하는 '기차 플랫폼'과 다목적 광장을 건립하고 인근 곡성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월스트 투어' 서비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섬진강 기차마을에 있는 종의공원엔 체육형 관광지로 꾸민다.

10만평(33만578㎡) 부지를 확보하고 기차마을과 연계한 '동화정원'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 동화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동화정원 조성 예정지에는 형형색색 꽃단지를 조성한다. 지난해에는 백일홍 꽃단지를 조성해 동화정원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동화정원 순환로를 개설하고 종의공원과 곡성천 일대에 호밀과 흥매밀 등 초류 종자를 파종했다.

한 해 100만명 관광객들이 곡성읍권과 섬진강

기차마을 동화정원, 곡성천까지 이어지는 연계 관광을 즐길 것으로 기대된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지난 1998년 폐선된 전라선을 활용해 대표적인 기차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섬진강 기차마을의 특구 면적을 동화정원에서 종의공원까지 대폭 확대하며 곡성 관광의 백년 대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오는 2026년까지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고도화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 동화정원 조성사업과 더불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구례·곡성·순창·담양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개최

장수노인 축하 힐링 문화체험



구례군이 최근 구곡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 장수벨트행정협의회 힐링 노하우 문화 체험을 대한노인회 전남 구례군지회(지회장 손병관) 회원 30명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진>

구곡순담 힐링노하우 문화 체험은 구례군, 곡성군, 순창군, 담양군이 건강 장수 노인들을 축하하기 위해 매년 4개 군이 순번제로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회장군인 구례군을 시작으로 전년 고찰 천은사와 돌레길 걷기, 압화박물관 견학, 목재문화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사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담양군(19일), 순

창군(28일), 곡성군(5월 3일) 순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곡순담 힐링노하우 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 간에 교류 확대 및 건강한 장수문화축제로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차 품평대회 출품작 24일까지 공모

보성군이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를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차 전문 품평대회'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회는 오는 5월4-6일 보성세계차엑스포 주행사장인 보성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다.

품평대회는 '세계 차 품평대회'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 '대한민국 티 블렌딩 대회'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차 생산 가공업체와 차 블렌딩 전문가 등은 오는 24일까지 보성세계차엑스포

추진위원회(062-974-91063)로 신청하면 된다.

세계 차 품평대회는 다음 달 6일 녹차, 청차, 홍차, 백차, 흑차, 황차 등 6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같은 달 5일 열리는 대한민국 차 품평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녹차, 발효차, 떡차, 말차 등 4가지 100여 개의 제품 심사 후 시상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티 블렌딩 대회는 4일 개최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 등 15개 의안 의결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제31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운영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해 15개의 의안(조례안 13, 승인안 1, 건의안 1)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했고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과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고흥군 병역명분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 8건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7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의안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특히 전남 동부해역을 담당하는 여수해양경찰서의 통솔범위가 초과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고흥해양경찰서의 조속한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여수시 '친환경 선박 규제특구' 됐다

여수국가산단·울촌산단 해안 일원 100% 친환경 소재 선박 개발·실증

여수시가 친환경 선박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여수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여수 국가산단·울촌산단과 해안, 영암 대불산단, 목포시 해안 일원이다.

사업에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4개 기관·기업이 참여한다.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이다. 여수 국가산단은 HDPE 원료 전국 생산량의 61%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이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10t 미만 소형 어선을 HDPE 소재로 제작하고 실증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지는 구역이다.

기존 국내 어선의 96% 상당은 재활용이 어려운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졌다.

어선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기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폐어선 방지와 해양환경 오염 문제가 생겼다.

여수 규제자유특구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유지된다.

국비를 포함해 200여 원이 투입돼 HDPE 소재개발, 어선 건조,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수시는 국내 연안 조업환경에 적합한 HDPE 소재를 개발하고 HDPE 재활용 및 사용기술 확보 등에 힘을 쏟는다. HDPE 원료 최대 생산지로서 여수시는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조선소 직접화사업을 벌이고 친환경 해양 조성을 위한 '화이트 바이오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규제특구 사업 내용에는 ▲HDPE 어선 건조공법 개발 및 어선구조기준 잠정기준(안) 제시 ▲HDPE 용접 표준(안) 제시 및 교육 ▲대표 선종의 생산 공법별 시제선 건조 및 실증 등 ▲소형선박용 HDPE 소재 개발 및 실증 등이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규제특구 지정으로 여수시가 친환경 선박기술을 선도함으로써 향후 HDPE 소재 선박시장 선점까지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기관이 집적화된 여수만의 장점을 살려 소재개발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최근 광양시 중동에 시각·청각 장애인 통합센터가 개소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갔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시각·청각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개소

광양시 중동에 시각·청각 장애인 통합센터가 개소했다.

광양시는 최근 시각·청각 장애인 통합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현판을 제막하고 센터 소개, 경과보고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광양시는 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중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올해 3월 개

선공사를 마무리했다.

이 건물에는 광양시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광양시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광양시 수어통역센터 등 3곳이 입주했다.

그동안 이들 3개 센터는 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건물을 사용해왔다.

광양시는 시각·청각 장애인 이용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공간 제약을 줄이기 위해 통합센터를 만들고 무상 대여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